

보도시점 (온라인) 2026. 8. 26.(수) 16:00
(지 면) 2026. 8. 27.(목) 조간

대형 물류시설 화재안전 합동점검 실시

- 조덕진 사회재난실장, 쿠팡 대구 풀필먼트센터 현장 점검(8.26.)
- 화재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 도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6일(수)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쿠팡 대구 풀필먼트센터를 방문해 대형 물류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7월 이후 인천 지역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기존 화재안전 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제도적 보완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 점검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소방청, 지방정부를 비롯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소방·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해, 소방,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그간 정부가 발표한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의 현장 이행 여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어렵게 하는 중층 적재 구조,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배터리를 탑재한 물류로봇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점검을 마친 뒤에는 참석자 간담회를 열어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조덕진 사회재난실장은 “대형 물류시설은 다양한 물품과 설비가 집적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장의

위험요인을 세밀히 살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사회재난실 국토산업재난대응과	책임자	과 장	조정원 (044-205-6330)
		담당자	사무관	김민수 (044-205-6331)

